

부송4지구 내년 말 준공 '탄력'

익산시,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승인 받아

익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서 내년 말 준공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마한로 공사 구간까지 연속성 있게 추진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부분완료 승인을 통보받았다.

문화재 발굴조사 대상지 1~3구역 가운데 마한로 기준 북쪽 지역인 1·2구역 2만702㎡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나머지 3구역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르면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연말까지 9만2,000여㎡ 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시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2만9,919㎡가 발굴조사 대상으로 전환돼 공사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승인으로 마한로 구간 공사까지 탄력을 받게 돼 내년 3월 조기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완료 학술자문 회의에 참석해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사업 시공성과 시민들의 편의사항을 직접 설명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왔다.

정현을 시장은 "동부권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부송4지구 개발과 단절된 마한로의 조속한 임시개통을 위한 공사



도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통환경과 정주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신재생자원센터 주변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마련됐으며 약 20만㎡ 부지를 주거 상업용지, 공공시설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가축피해 발생 차단에 총력을"

익산시, 여름철 가축피해 예방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익산시는 올 여름 역대급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폭염 대비 환경 개선과 악취 저감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농가 피해를 예방한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사업비 8억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334곳에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적기에 악취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을 대비해 환풍기와 콜딩매트, 안개 분무기 등 사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자재와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도 1억4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농가에 지속적인 환기, 안개 분무와 송풍팬을 활용한 온도 낮추기, 적정밀도 유지 등을 위한 예방 활동을 당부할 계획이다.

여름철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가축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해 발육저하, 번식장애, 면역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폐사 위험성을 높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

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농가나 행정 모두 재해 대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이다"며 "가축피해 예방 활동을 통해 재해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가 방울토마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비 촉진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으며 농가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익산시, 토마토 소비 촉진 프로젝트 '큰 호응'

익산시가 방울토마토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소비 촉진 프로젝트가 큰 호응을 얻으며 농가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시는 방울토마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농가가 어려움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시청 주차장에서 개최된 방울토마토 소비 촉진 행사가 시작 1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익산 탐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이 주관했으며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준비한 물량을 조기에 소진하고 추가로 물량을 보충하면서 3kg 포장 방울토마토 1톤, 총 320박스가 판매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 고품질의 탐마루 방울토마토 시식을 진행해 소비 활성

화를 유도하기도 했다.

시는 탐마루 소평물에서 기획전을 펼치는 등 농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앞서 시는 4월부터 마을전자상거래 '익산몰(www.iksamall.com)'과 오픈마켓인 옥션, 지마켓, 우체국쇼핑 등에서 방울토마토 온라인 기획전을 통해 2억여원을 판매한 바 있다.

행사에 참여한 방울토마토 농가는 "소비 위축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준 익산시와 소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다양한 기획전을 통해 방울토마토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농가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앞장 서겠다"며 "앞으로도 판로 걱정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항 · 새만금신항 One-Port 전략수립 용역 착수

김미정 부시장 주재 착수보고회 개최

군산시는 30일 김미정 부시장 주재로 군산시 체력증진인증센터 3층 회의실에서 군산항·신항 One-Port 전략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산새만금신항 1·1단계 개발이 오는 2025년에 완료됨에 따라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 재정립을 통한 상호보완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김제시와 분쟁중인 군산새만금신항에 대한 행정적·자연 환경적·지리적인

관점에서 조성배경 분석을 통해 군산시 귀속의 당위성을 확보, 군산항의 수심 부족 기능의 보완 및 군산항의 항세 확장의 연장선상에서 건설되는 군산새만금신항의 본래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방안을 제시함으로써 兩항만의 균형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군산항과 신항의 지정학적 배경·해운·항만 여건 분석, 군산항과 신항의 기능·역할 분석, 항만행정체계 단일화 영향 분석, 지역경제기여도 분석 등이며 이를 통한 군

산항과 신항의 One-Port 전략수립과 중장기 정책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은 30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4년 4월말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항만관련업체 간담회와 유관기관·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군산항과 신항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의 공유수면에 군산시 옥도면 두리도와 연결하여 인공섬 형태로 조성되는 항만이다. /김재춘 기자

김영일 군산시의회 의장, 중국 구이양 세계빅데이터 박람회 국제포럼 참석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26일 중국 구이양에서 열린 2023 세계빅데이터 박람회에서 스마트 국제포럼의 패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에 대비한 세계적 동향에 대해 토론을 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산 새만금의 국제적 비전을 제시했다.



근거리에 있는 등 유라시아와 연결될 수 있는 지리적 이점과 천혜의 자연조건이 갖춰져 향후 새만금 국제공항, 군산새만금신항 새만금인양철도가 완공돼 항만·공항·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가 구축되면 동북아 경제중

심도시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군산 새만금을 우리나라의 스마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크게 빅데이터 수변도시, 빅데이터 첨단산업단지, 빅데이터 친환경 산업도시로 나누어 개발하여 국제화 도시로 가야 한다"면서 "특히 데이터 주권 등 기술개발로 인해 자칫 침해될 수 있는 인격권을 보완하여 인간의 인권이 보장되는 빅데이터 도시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

지역 소식 통

익산시, 하수처리시설 개선... 쾌적한 환경 조성

익산시는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시는 어양과 부송, 팔봉동 등 시가지 일원에 분류식 배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북부 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별도의 전용 오수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정화조 폐쇄 직관 연결 공사로 알려져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248억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1,363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건물 층·개축이나 용도변경 시 정화조 설치 필요 없게 되어 건물주 부담이 해소되고 업종변경이 편리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이재춘기자

군산시, 장애인 관련 시설·기관 간담회 가져

군산시는 30일 자원봉사센터에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관련 시설 및 기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시설 및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 추진 보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거주시설 3곳의 시설장을 비롯,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시 관계자의 시범사업 사업 개요 설명 후, 참석자들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 구축 대안 및 개선방안 마련, 이용자 중심의 자립지원 정책 마련, 장애인 특성 정도에 따른 다각적인 정책 마련, 장애인 거주시설 부족에 따른 고품류 부문의 돌봄에 대한 대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배속진 경로장애인과장은 "시범사업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민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기자